

한눈에 보는 충북 아이돌봄서비스 현황



지도로 보는 충북 아이돌봄서비스 현황
PART1. 서비스 이용(이용가구/이용아동) 현황
PART2. 아이돌봄사 현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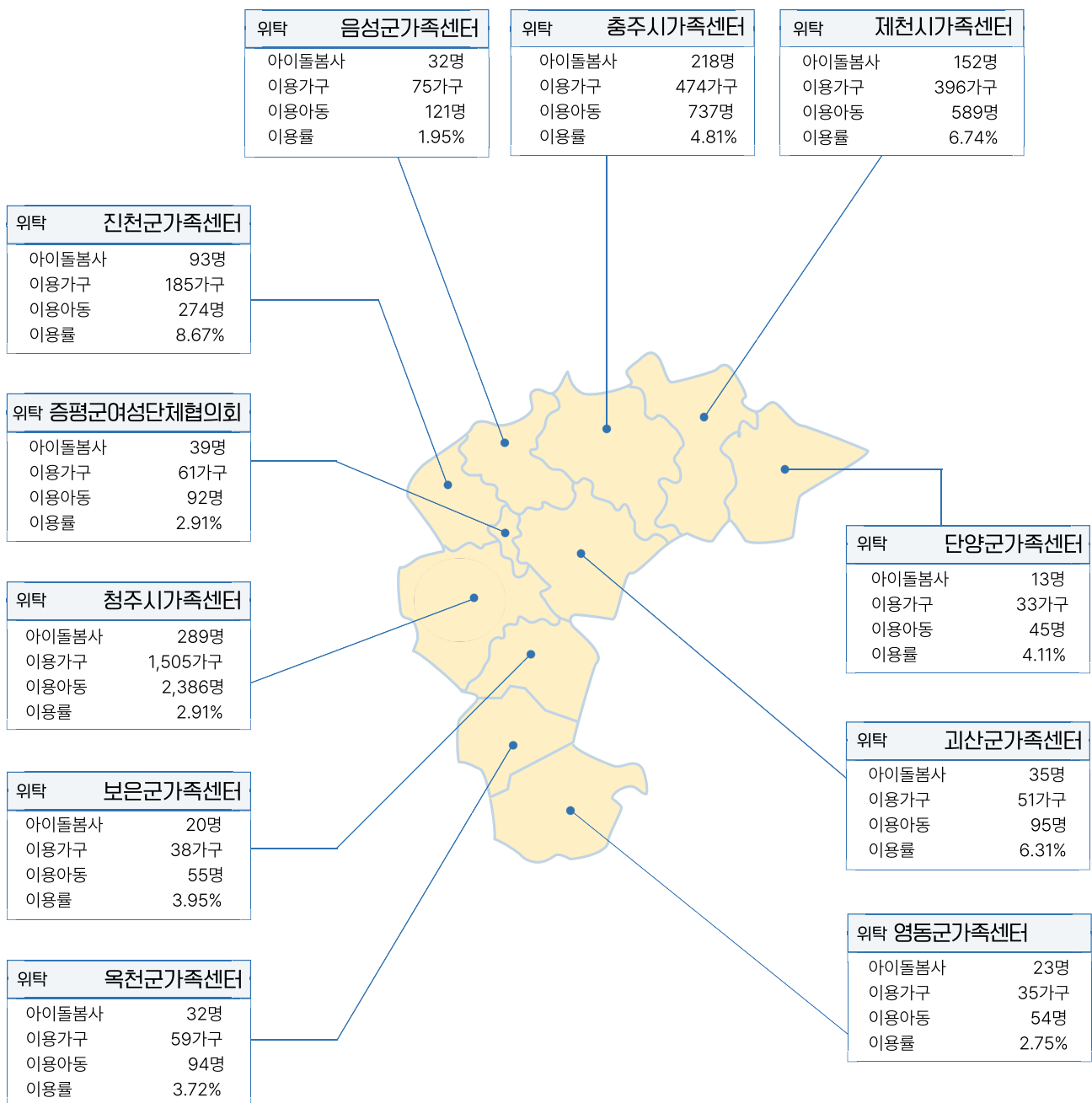




지도로 보는 충북 아이돌봄서비스 현황

2026년 5월 충북 아이돌봄서비스 현황 요약

- 충북 소속 아이돌봄사: 946명
- 아이돌봄서비스 실이용가구: 2,912가구(전년 동월 대비 ▲1,275가구)
- 아이돌봄서비스 실이용아동: 4,542명(전년 동월 대비 ▲1,912명)
- 아이돌봄서비스 이용률: 3.57%



서비스 이용 현황 요약

- 01) 이용자 홈페이지 정회원 수는 3,077명(이 중 5월 신규 회원 수는 117명)
- 02) 2026년 5월 기준, 충북 아이돌봄서비스 실이용가구 2,912가구(전년 동월 대비 ▲1,275가구)
- 03) 이용률이 가장 높은 소득 유형은 ㉠형(66%), 가장 낮은 소득 유형은 ㉡형(2%)

1-1. 충북 아이돌봄서비스 회원 현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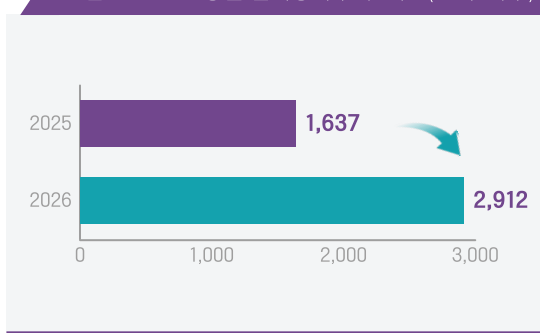
- 2026년 5월 기준, 충북에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이용자 홈페이지 가입 후 정회원이 된 회원 수는 3,077명이며 이 중 5월 신규 회원 수는 117명임.

* 정회원: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홈페이지 가입 후 서비스제공기관 승인을 받은 회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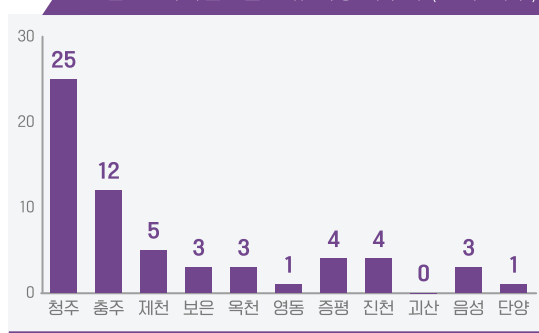
1-2. 충북 아이돌봄서비스 실이용가구

- 2026년 5월 기준, 충북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한 실이용가구는 2,912가구이며 이 중 신규 이용가구는 61가구임.
- 2026년 5월 실이용가구는 전년도 동월인 2025년 5월 대비 1,275가구 증가하였음.

<그림1> 전년도 동월 실이용가구 수 비교(단위: 가구)



<그림2> 지역별 5월 신규 이용 가구 수(단위: 가구)



* 지역별 실이용가구 수는 「지도로 보는 충북 아이돌봄서비스 현황」 참고

* 실이용가구=시간제(기본형/종합형), 종일제, 질병감염, 단기, 기관연계 서비스 모두 포함

1-3. 소득유형별 이용가구

- 충북 아이돌봄서비스 실이용가구 중 ㉠유형에 해당하는 가구가 66%(1,912가구)로 가장 많으며, ㉡유형이 2%(54가구)로 가장 적음.

* 소득유형: 이용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㉠~㉡형으로 소득유형 구분

<표1> 소득유형별 이용 현황

소득유형	소득기준	정부지원비율	해당 가구 수
㉠유형	기준 중위소득 75% 이하	이용요금의 85~75%	1,912가구(66%)
㉡유형	기준 중위소득 120% 이하	이용요금의 60~40%	686가구(23%)
㉢유형	기준 중위소득 150% 이하	이용요금의 30~20%	137가구(5%)
㉣유형	기준 중위소득 250% 이하	이용요금의 15~10%	54가구(2%)
㉤유형	기준 중위소득 250% 초과	본인부담 100%	110가구(4%)

서비스 이용 현황 요약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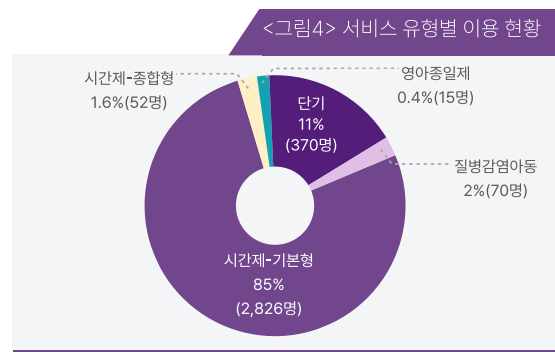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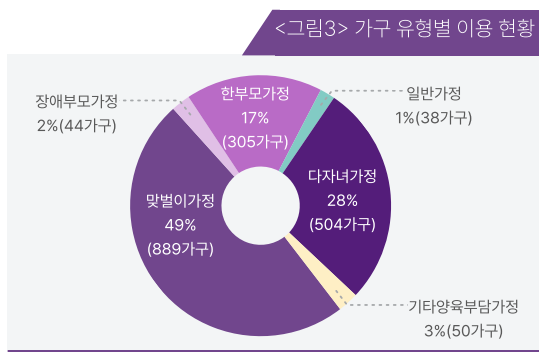
- 01) 이용률이 가장 높은 가구 유형은 맞벌이가정 49%(889가구)
- 02) 이용률이 가장 높은 서비스 유형은 시간제-기본형 85%(2,826명)
- 03) 아이돌봄서비스 이용률이 가장 활발한 시간대는 16시~18시(새벽 2시~4시가 가장 저조)

1-4. 유형별(가구 및 서비스) 이용가구

- 전체 실이용가구 중 맞벌이가정이 49%(889가구)로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으며, 일반가정이 1%(38가구)로 가장 적게 이용하고 있음.
- 서비스 유형 중 등·하원 후 놀이 활동 등 기본서비스를 제공하는 시간제-기본형 이용률이 85%(2,826명)로 가장 높으며, 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아종일제 이용률이 0.4%(15명)로 가장 낮음.

* 서비스 유형: 돌봄 대상과 활동 범위에 따라 시간제(기본형/종합형), 질병감염, 영아종일제, 단기로 구분

* 서비스 유형별 이용 수=실이용아동 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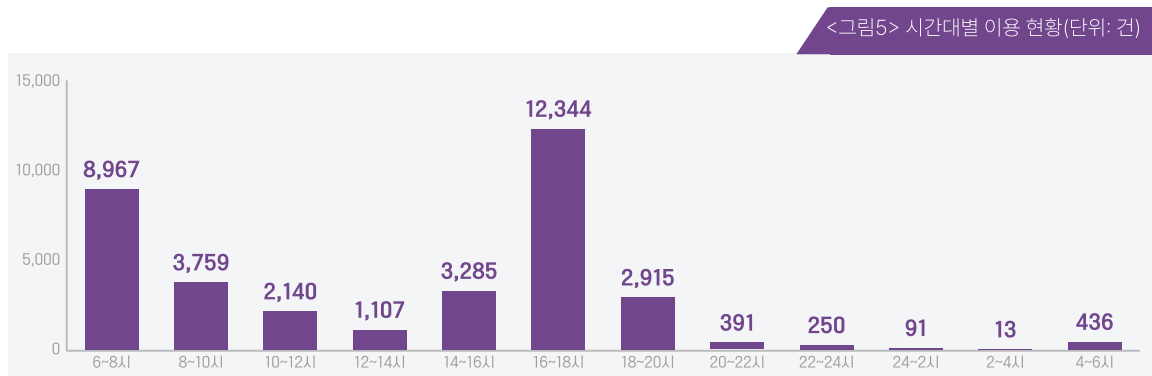


* 가구 유형별 이용 수는 단기서비스가 미포함된 수치이므로 서비스 유형별 이용 수와 상이

* 단기서비스는 2026년 3월까지 누적 수치였으나 4월부터 월별 조회 및 합산

1-5. 시간대별 이용가구

- 시간대별로 오전(06~12시), 오후(12~18시), 저녁(18~24시), 심야(24~06시)로 구분하였을 때, 오후(12~18시) 이용률이 47%(16,736건)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심야(24~06시) 이용률이 2%(540건)로 가장 적은 비율을 차지함.
- 또한 오후 시간대 중 16~18시가 35%(12,344건)로 이용률이 가장 높으며, 심야 시간대 중 02~04시가 0.03%(13건)로 이용률이 가장 저조함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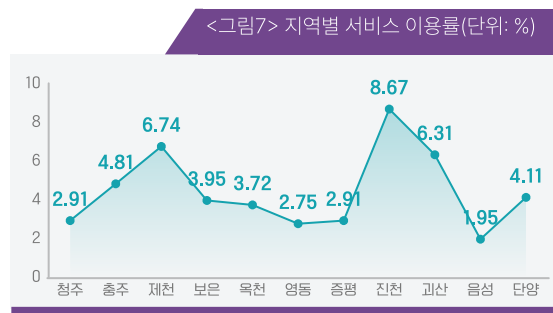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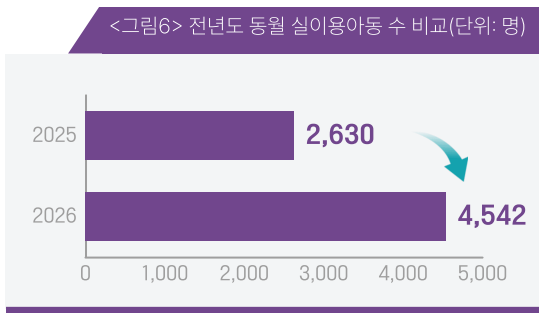
서비스 이용 현황 요약

- 01) 2026년 5월 기준, 충북 아이돌봄서비스 실이용아동 4,542명(전년 동월 대비 ▲1,912명)
- 02) 2026년 5월 기준, 충북 아이돌봄서비스 대상 연령 대비 실이용률은 3.57%
- 03) 아이돌봄서비스 이용률이 가장 높은 연령대는 0세 14%(421명)

1-6. 충북 아이돌봄서비스 실이용아동

- 2026년 5월 기준, 충북의 아이돌봄서비스 대상 연령대인 0~12세 아동 127,052명 중 4,542명이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였으며, 전년도 동월인 2025년 4월 대비 1,912명 증가하였음.
- 충북 아이돌봄서비스 실이용률은 3.57%로 지역별 이용률을 살펴보면, 진천군이 8.67%로 서비스 이용률이 가장 높으며, 음성군이 1.95%로 서비스 이용률이 가장 저조한 지역임을 알 수 있음.

* 실이용률: 충북 0~12세 전체 아동 대비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아동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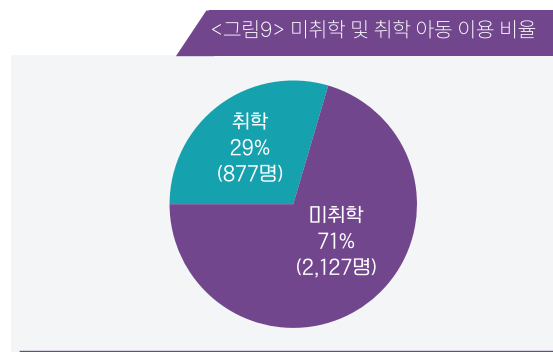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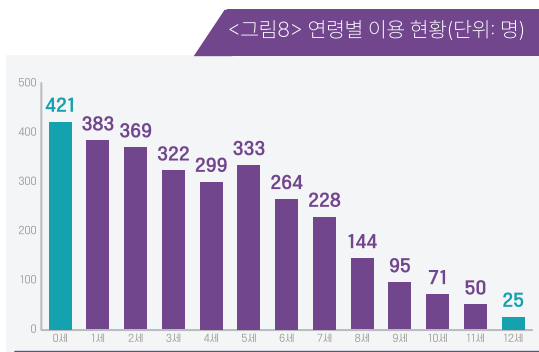


* 지역별 실이용아동 수는 「지도로 보는 충북 아이돌봄서비스 현황」 참고

1-7. 연령별 이용아동

- 2026년 5월 서비스 이용아동 중 0세 이용 아동이 14%(421명)로 이용률이 가장 높으며, 12세 이용아동이 1%(25명)로 이용률이 가장 낮음.
- 또한 미취학 아동의 이용률은 71%(2,127명)로 취학 아동의 이용률인 29%(877명)보다 현저히 높음을 알 수 있음. 학교 입학 후 방과후교실과 학원, 기타 돌봄센터 등 다양한 돌봄 및 교육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취학 아동의 이용률이 적음을 알 수 있음.

* 미취학 아동: 5세 이하 아동, 취학 아동: 6~12세 아동



아이돌봄사 현황 요약

- 01) 2026년 5월 기준, 충북 소속 아이돌봄사 946명(활동 아이돌봄사 955명)
- 02) 충북 소속 아이돌봄사 평균 연령 60세(최저 연령 26세, 최고 연령 77세)
- 03) 충북 활동 아이돌봄사 평균 급여 총액 1,949,575원(실 지급액 1,780,556원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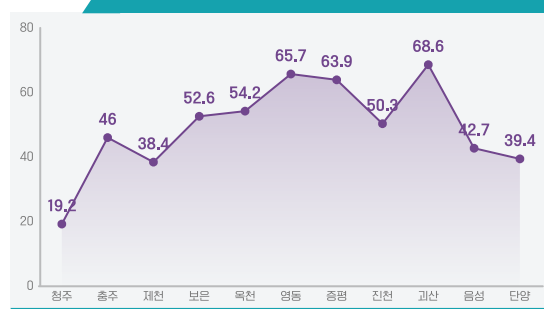
2-1. 충북 소속 아이돌봄사 및 이용가구 대비 비율

- 2026년 5월, 충북 소속 아이돌봄사는 946명이며, 활동 아이돌봄사 수는 955명임.
* 소속 아이돌봄사: 기준 월에 재직중인 돌봄사 수
* 활동 아이돌봄사: 센터에서 실제로 일한 돌봄사 수(퇴사자 수를 포함한 누적 수)
- 충북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구인 2,912가구 대비 아이돌봄사 946명의 비율은 32%로 아이돌봄사 1인당 3.07가구에 서비스 제공하고 있음.
- 이용가구 대비 아이돌봄사 비율은 괴산군이 68.6%로 충북에서 가장 높으며, 청주시가 19.2%로 이용가구 대비 아이돌봄사 비율이 가장 낮은 지역임을 알 수 있음.

<그림10> 소속 및 활동 아이돌봄사 현황(단위: 명)



<그림11> 이용가구 대비 아이돌봄사 비율(단위: %)



* 지역별 소속 아이돌봄사 수는 「지도로 보는 충북 아이돌봄서비스 현황」 참고

2-2. 충북 아이돌봄사 평균 연령

- 충북 아이돌봄사 연령대는 대부분 50~60대에 속해있으며, 평균 연령은 60세임.
- 충북의 최저 연령 아이돌봄사는 증평군에 소속되어 있는 26세 아이돌봄사이며, 최고 연령 아이돌봄사는 음성군에 소속되어 있는 77세 아이돌봄사임.

2-3. 충북 아이돌봄사 평균 급여

- 5월에 활동 후 급여를 수령한 활동 아이돌봄사는 946명임.
- 충북 활동 아이돌봄사 평균 급여 총액은 1,949,575원이고 4대보험 및 기타 공제 금액을 제한 평균 실지급액은 1,780,556원임.
- 활동 수당이 동일하더라도 지역별 교통비 및 동시돌봄 수당 등의 차이가 있어 동일 시간 근로를 하였더라도 실급여에는 차이가 있음.